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6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3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30(수)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혁신과
담당과장	이재근 과장(044-203-4360) 박 훈 과장(044-203-4370)		담 당 자	윤용석 사무관(044-203-4365) 김성준 사무관(044-203-4369) 홍기웅 사무관(044-203-4371)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윤규)는 5.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중견기업 비전 228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②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참고1)
 -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18.5.31(목) 14:00~15:30 /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 [정부] 이인호 산업부 차관,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특허청 [유관기관] 중견련, KIAT, 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과기연, 산업연 [업계] 송원그룹,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루멘스, 계양정밀 등
- 논의 안건 : ①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②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

-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수출 기업화) '22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도약기업 80개를 선정*(4.2, 금년 중 100개 선정) 하였으며, 41개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추가로 선정(5.15)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중심의 월드클래스300*(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 수출도약기업 20개(9월), 월드챔프기업 50개(9월), 세계일류상품 40여개(11월) 추가 선정 예정

** 월드클래스300 후속 사업으로 기획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8월)

-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합동 채용박람회인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5.10)하여 73개 중견기업, 구직자 4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중견기업이 지역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2차례 개최(4.10, 5.16)하고,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 1회(4.10, 충남대), 2회(5.16, 전북대) / 3·4회(9월, 영남권), 5회(10월, 강원권) 개최 예정

** 초기 중견기업이 고급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40% 지원(18년 10억원) / 사업신청 접수(6월) 예정

-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중견기업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주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중견기업인 행동강령」을 제정(2.22, 중견련)하고, 불공정행위 기업은 월드클래스300을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중견기업 중심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예시> (반도체) 대중견-중소 장비·소재기업 상생발전위원회 출범(2.7), (IoT·가전) '스마트 홈 발전 협의회' 운영, (철강) '철강 제조혁신 플랫폼' 단계적 구축 추진(9월~) 등

** 월드클래스300 사업 참여 제한(4월) → 월드챔프(9월), 세계일류상품(11월) 사업 등으로 확산 추진

-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8년 세제·고용 등 10개 규제·제도개선 과제가 시행되었으며, 추가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가 합의하고, 올해 11월 중견기업 주간을 신설*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최 계획(안) : 11.19(月) 중견기업인의 날, Leading Korea Job Festival, 11.20(火)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11.21(水)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쇼

□ 특히, 관계부처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11개 성장 디딤돌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2)

- (일자리 창출 3건)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한다.

* 현재 내일채움공제 납입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이 중소기업만 적용되어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개선되어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활성화될 전망

** 중소기업만 지원하도록 규정된 「청년고용촉진법령」을 개선하여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지고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대

- (기술혁신 5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 현재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 지원 제도 및 기술금융 지원 사업 등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어 중견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 촉진 기대

- (경영 등 3건)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공공입찰 참여 기준을 기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벤처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개선 과제(세부내용 별첨)>

구분	개선 방안	구분
일자리 (3)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법인세)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 확대	기재부
	고용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고용유지 과세특례 확대	기재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고용부
기술혁신 (5)	청정생산기술 지원	산업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산업부
	특허 담보대출 등 지원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특허청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 장벽 완화	산업부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정의를 인용하도록 개정	산업부
경영 (3)	벤처기업 인정 요건	중기부
	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중소→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중견기업소비자 의견반영 절차 마련	중기부
	소프트웨어 입찰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공공입찰 참여 신고기준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5년 이내'로 개선(「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토부

-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최근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면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중견기업이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올해 중견기업은 1만 1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조 3천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중견기업 비전 2280」 및 이번 규제·제도 개선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윤용석 사무관(☎ 044-203-4365), 김성준 사무관(☎ 044-203-4369), 중견기업혁신과 홍기용 사무관(☎ 044-203-43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추진 배경

- 관계부처·기관들의 「중견기업 비전 2280」(18.2.5일 발표)」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 등 논의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5.31(木) 14:00~15:30 / 서울 롯데호텔 샤프테룸(36층)
- 참석자 : 산업부 차관,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장, 중견업계, 학계
- 논의 안건(안) : ①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②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현황 및 계획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3 (3')	인사말씀	산업부 차관
14:03~14:06 (3')	인사말씀	중견련 회장
14:06~14:40 (34')	(안건1)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 ①산업부→②KIAT→③무보→④산은→⑤KOTRA→⑥중견련	각 기관
14:40~14:50 (10')	(안건2)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현황 및 계획	중견련
14:50~15:30 (40')	전체 토론	참석자 전원

< 참고 : 참석자 명단 >

구분	위원	소 속	직 위	비 고
정부 위원 (7)	1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 한 훈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3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4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5 정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6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7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	
유관 기관 (7)	1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 장	
	2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 장	
	3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4 김진열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5 신·석·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6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7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 장	
민간 위원 (8)	1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 장	
	2 김해련	송원그룹	회 장	
	3 유태경	(주)루멘스	대표이사	
	4 안병준	한국콜마(주)	대표이사	
	5 이경덕	(주)계양정밀	부사장	
	6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	원 장	
	7 이 홍	광운대학교	교 수	
	8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 수	
간사	-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참고2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현황 및 계획

1 추진 배경

□ 중견기업群은 우리나라 총 고용의 5.5%(115만명), 수출의 17.2%(851억불), 매출의 14.5%(640조원)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 중견기업은 고임금·장기재직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바이오헬스·드론 등 新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4차 산업혁명 주도

* 대졸초임 3천만원 이상 기업 비중(%,'13) : (중견기업) 47% vs (중소기업) 2%
* 신산업별 중견기업 수출 비중('15): 바이오헬스(52.8%), 항공드론(42.8%), 시스템반도체(38.1%)

○ 튼튼한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경제위기시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여 경제 안정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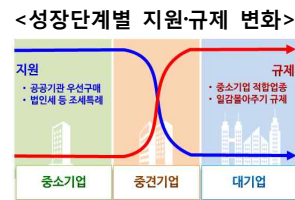
* (독일) 강소·중견기업(Mittellestand)으로 제조강국 위치를 공고히하고 4차 산업혁명 주도
** (일본) 교토형 중견기업이 잃어버린 10년 극복 및 지속 성장에 기여

□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이분법적 기업정책*은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은 보호·육성하고 대기업은 규제

○ 기업 성장함에 따라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여 성장부담이 가중되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群 취약

* 국내 중견기업 수는 전체기업의 0.1%(4,014개, '16년)로 독일 일본의 1/5 수준(독일 0.57% 일본 0.55%)



□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중견기업특별법」 제정('14.7월)을 비롯해 이분법적 기업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

* 피터팬 증후군으로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8%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의사 표명(중견기업실태조사, '17)

☞ 중견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디딤돌 강화 필요

2 성장디딤돌 강화 방안

□ (기본 방향)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령·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 강화

○ 실태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해소

< 기업 규모에 따른 성장부담 완화 >



□ (과제 현황) '13년~'18년 간 총 66건의 이분법적 법령·제도 개선

* 고용·기술혁신·투자지원 중심으로 중소↔대기업 분류에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견기업 제도개선 연혁 >

구분	고용	기술	투자	수출판로	법령정비	하도급(상생)	기타	합 계
2018년	5	2	1	-	1	1	-	10
2017년	2	2	4	1	1	-	-	10
2016년	5	2	-	4	1	-	1	13
~2015년	7	6	10	4	-	3	3	33
합 계	19	12	15	9	3	4	4	66

○ 특히, 새정부 출범 및 중견기업 업무 이관(舊중기청→산업부)을 계기로 심층 검토*를 거쳐 신규 성장디딤돌 과제 총 37건 발굴

* ①범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혁신 TF' 가동('17.9~11월), ②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 방안 연구('17.11월, 중견기업연구원), ③중견기업 비전 2280 발표('18.2월) 등

○ '18년 10개 성장디딤돌 개선 과제 시행,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1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합의 (나머지 16건 추가 검토 필요)

< 주요 개선협의 과제 >

① (일자리 창출 3건) 내일채움공제 법인세 손금산입*,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고용촉진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중견기업 내일채움공제 납입 기여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참여 확대
 **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 근거 마련

② (기술혁신 5건) 청정생산기술 지원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확대** IP 연계 금융지원 확대***, 신기술 인증제도(NET)시 중견기업 진입장벽 완화, 산업융합촉진법의 중견기업 정의 정비****

*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법」의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확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IP 우대보증, 담보대출 등 IP 가치평가 연계 금융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를 「중견기업특별법」 기준과 통일되도록 정비

③ (경영 등 3건) 초기 중견기업 벤처기업 확인 허용*, 공간정보산업 중견기업 공공 입찰 참여범위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 의견 반영 절차 마련

* 벤처기업 확인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허용하여 연속적인 성장사다리 조성
 ** 공간정보산업 분야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 졸업 후 3년→5년으로 조정,

□ (향후 추진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역량 결집

○ 현실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과제의 경우 정책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디딤돌 과제도 지속 발굴

* (예시) 기존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존 수혜 중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유예기간을 폭넓게 부여

3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세부 내용

1. '18년 시행 과제 : 총 10건 개선 완료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구분	시행일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3	▪(현행)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재고용 후 인건비 2년간 10% 공제 ▪(개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5% 공제(중소 30%)	고용	'18.1.1
2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2	▪(현행)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개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5% 공제(중소 30%)	고용	'18.1.1
3	고용증대세제 신설	조특법 제29조의7	▪(현행)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2개 제도 운영 ▪(개선) 2개 제도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투자가 없어도 연간 일정금액 공제 * 상시근로자 : 중소(수도권 700만원 지방 77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 등 : 중소(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 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 지원기간 : 중소, 중견 1년 → 2년으로 확대	고용	'18.1.1
4	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근로자 소득세)	조특법 제29조의 6	▪(현행) 중소기업만 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 성과보상공제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50% 감면 ▪(개선) 중견기업까지 세제지원 확대 * 소득세 감면 : 중소 50%, 중견 30%	고용	'18.1.1
5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현행) 중소-중소간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세액공제 * 공제액 :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0.1%~0.2% ▪(개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세액공제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하도급 (상생)	'18.1.1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구분	시행일
6	신재생에너지 관세 경감	조특법 제118조 제1항제3호	<p>▪(현행) 중소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경감</p> <p>* 국내 제작이 곤란한 71개 품목</p> <p>▪(개선) 중견기업을 관세경감 대상에 추가</p>	경영	'18.1.1
7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제1항제1호	<p>▪(현행)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 + 일정 배수'(30% 한도) 세액공제</p> <p>▪(개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신성장 R&D 비용 최대 40%까지 세액공제</p>	기술	'18.1.1
8	중소중견기업 '특허 공제' 제도 도입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신설)	<p>▪(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을 위한 제도 미비</p> <p>▪(개선)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p> <p>*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소액으로 월별 부금 납입 → 특허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우선 지원 후 5년간 상환하는 방식</p>	기술	'18.5.29
9	금융보험업 지주회사 개편	중견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p>▪(현행) 표준산업분류 개정('17.7.1) 후 일반 지주회사가 전문서비스업→금융·보험업으로 변경되어 중견기업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p> <p>*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법령 상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p> <p>▪(개선) 중견기업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신설(시행령 개정)</p>	경영	'18.3.27
10	청년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p>▪(현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사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으로 한정</p> <p>* 3명 추가 고용 시 3년간 연 2,000만원 지원</p> <p>▪(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p>	고용	'18.6.1

2. 신규 개선 추진 과제 : 총 11건 (관계부처 협의 완료)

① 기획재정부 : 2건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비고	향후 계획
1	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제 4호	<p>▪(현행) 중견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18년 시행될 예정이나,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필요경비의 계산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p> <p>▪(개선)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에 대해 손비인정 적용</p>	고용	'19.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2 령 제27조의3	<p>▪(현행)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p> <p>* ①+② (①직전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50%, (② 해당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전체 근로시간 합계 × 50%</p> <p>▪(개선) 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혜택 확대</p>	고용	'18.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② 산업통상자원부 : 4건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비고	향후 계획
3	청정생산기술 지원	환경친화적산업 구조전환법 제8조	<p>▪(현행)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p> <p>▪(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p>	기술	'19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26조	<p>▪(현행)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초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p> <p>▪(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p>	기술	'18.12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5	신기술 인증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신기술(NET)인증 운영요령 제8조	<p>▪(현행) 신기술(NET) 인증심사 시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에 대해 심사기준 차별</p> <p>* 중소기업 70점, 그 외 75점</p> <p>▪(개선)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 장벽 완화</p>	기술	'19.6월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
6	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	산업융합촉진법 제24조, 제26조, 제30조	<p>▪(현행) 중소기업법, 공정거래법을 인용해 중견기업 정의 규정</p> <p>▪(개선)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정의로 개정</p>	기술	'19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③ 고용노동부 : 1건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비고	향후 계획
7 중소기업 미취업자 지원	청년 고용 특별법 제7조	■(현행) 중소기업체가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① 청년 미취업자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②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고용	· '18.9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④ 중소·벤처기업부 : 2건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비고	향후 계획
8 벤처기업 요건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현행) 벤처기업 확인 요건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규정 ■(개선)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확인 요건 개정	경영	·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동위 계류 중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9 생계형 적합업종	대·중 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현행)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대·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견기업계 의견 반영 미흡 * 동반위 구성 : 대기업 대표 9명, 중견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11명, 공익위원 6명 ■(개선)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판로	·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18.5.28) 및 시행('18.12월)

⑤ 국토교통부 : 1건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비고	소관
10 공간정보산업진흥 법상 중견기업 기준	공간 정보 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현행) 중견기업의 사업금액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공공입찰 참여 기준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인 상위 규정과 불일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과기부 고시) ■(개선)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공공입찰 참여 관련 신고 기준을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로 개선	판로	· '18년, 「공간 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⑥ 특허청 : 1건

과제명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비고	소관
11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	발명진흥법 제30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현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IP 우대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 IP 가치평가 연계 금융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IP 가치평가 수행 및 비용을 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기술	· '18.12월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

참고3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중견기업은 혁신역량을 견인할 R&D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
 - * 필요인력 : 고급 R&D인력 30.5%, 숙련기술인력 25.7% 順(KIAT)
 - *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연구인력 부족률(미충원/필요인원) : 10%
 - * 초기 중견기업 330개 대상 조사 결과, 178개사가 연구인력 부족 호소(KIAT)
-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나 청년들은 대기업에 비해 저임금인 초기 중견기업을 기피
 - * 고급 연구인력 확보 애로요인(KIAT) :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47.1% 해당인력 부족 17.6%
 - * 초기 중견기업의 인력고용 시 애로요인 분석(KIAT) : 낮은 임금 29.4% 지방 22.4% 順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예산 : 9.89억원)

- (사업목적)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최대 3년간 R&D인력 인건비를 지원(출연)

구분	①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②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석사	박사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①번 : 최대 2명까지 지원, ②번 : 최대 1명 지원 → ①,②번 중복지원 안됨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초기 중견기업
 - * 초기 중견기업 : 최근 3개년('15~'17) 매출액 평균 3천억 미만 기업
- (지원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 ①청년 석박사 : 만19세~만34세, ②고경력 :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 2018.2월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 채용 예정인 인력(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은 기점부여)
- (지원조건) 채용된 인력은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 프로젝트 제출 의무화
-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
- (신청기간) '18.6.1~7.13 (온라인 접수 : '18.7.2~7.13), 협약일 '18.8.1(예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k-pass.kr)

※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5.31일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02)6009-3512, 3501